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7월 23일(주일) 제1452호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46개 팀 5,387명



SNS청년부의 말라위 아웃리치.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다. 성
인공동체와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가 한
손에는 복음, 또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열
방으로 떠나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
웃리치에는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46
개 팀 5,387명이 참가한다(7월 20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폴란드, 모로코, 카자흐스
탄 등 32개국으로 떠난다. 성인공동체 85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참여한다. 현지 교회 방문, 선
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
등지에서 한다. 성인공동체 116개 팀 2,689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여한다. 블레싱,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이주민 섬김 등을 한다.

올해도 여름 아웃리치 은혜를 온 누리와 나
눈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20일(일)까지 ‘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비공개 지역이나 노
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
그(#온누리아웃리치 2023) 하거나 미디어본
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
면 된다. 시상도 한다. 1등 30만 원(1팀), 2등
(20만 원 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 외식 상
품권(배달앱)을 준다. 시상한 영상은 온누리
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과 페이스
북(@onnuriCommunityChurch)에 게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
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은혜가 담긴
성도들의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 크기 10포인
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
적인 사역 사진이,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각 공동체(국내), 02-3215-3211(해외)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8월 1~5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8월 2일(화)은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다. 온누리교회는 7월 31일(월)부터 8월 4
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를 기리고 추모
한다. 추모기간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
스 새벽기도회에서 하용조 목사의 생
전 설교를 상영한다. 〈이사야〉44~45장
본문으로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
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
진 시간에 새벽기도회를 한다.

8월 2일(수) 오전 11시에는 Acts29비전
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
사 소천 12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유
가족과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홍성호 장로
(당회서기) 대표기도, 블러썸채퍼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강부호 목사 축
도 등이 이어진다.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실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
계한다.

하용조 목사는 2011년 8월 2일 뇌출혈
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향년 65세. 연예
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일본문화전도전집회 러브소
나타 시작,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
립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 ‘미야기’ 10월 11~12일



주제로 막 오른다.

일본 미야기 센다이는 13년 전 동북 대지진
피해지다. 러브소나타 ‘미야기’에서는 일본 성
도와 청년들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리
바이벌나이트(한일합동성령집회), 소셜 액션

일본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 노래
가 울려 퍼진다.
10월 11일(수)과
12일(목) 일본 미
야기 센다이 선플
라자에서 러브소
나타 미야기가 ‘
보라 내가 새 일
을 행하리니’를

세미나,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러브소나타 집
회 등이 이어진다. 소셜 액션 세미나에서는 이
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와 오오토모 마사유
키 목사(시오가마성령교회)가 메시지를 전한
다.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에서는 노희태 목사
(차세대사역본부), 마츠다 마키토 목사(오아시
스 교회),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사랑채퍼, 가수 선예,
개그우먼 조혜련, 하다쉬뮤직, 소프라노 김영
미, 소라토리, CRUX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2-570-741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비
는 20만 원이다. A팀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
지, B팀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이다.
참가 비용에는 항공, 호텔, 식사 비용이 포함되
어 있다.

/ 홍하영 기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2023 카
운트다운(이하 카운트다운)’이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15일(토)과 16일(일) 송도 컨벤시아
에서 열린 카운트다운에는 이틀 동안 청년, 성
도, 선교사, 목회자 등 7,040명이 참가했다. 청
년 141명은 선교 헌신을 작정했다.

2023 카운트다운은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진행
됐다.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
하나님의 비밀병기’,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
회)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선교를 이해하는
5가지 핵심 단어’, 16일(주일) 이재훈 목사 ‘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관련 기사 4면〉

‘QT하고 빙수먹자’

슬기로운 방학생활
7월 24일~8월 19일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 ‘QT하고
빙수먹자’ (이하 ‘QT하고 빙수먹자’)가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 ‘QT하고 빙수먹자’는 차
세대가 방학 동안 큐티하면서 영적 성장을 하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7월 24일(월)부터 8
월 19일(토)까지 이어진다.

‘QT하고 빙수먹자’에서는 차세대 QT(예수
님이랑나랑, 예수님이좋아요, 새벽나라) 교제
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참여일수에 따라 차세대들에게 빙수를 간식으로
보내준다. ‘가족큐티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에덴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유죄 선고와 심판과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죄의 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은 무한한 형벌의 죄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는 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 순간에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탄과 악을 허용하신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만 허용됩니다. 둘째, 이 기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세우는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악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에 대해 언젠가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갈등과 십자가

〈창세기〉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창세기〉3장 15절에 세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첫째, 사탄과 여자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 증오심과 미움을 두었으므로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미움입니다. 악에 대한 미움이 없으면 우리는 악에 휩쓸립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과 한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사탄과 적이

되어서 전쟁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우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 미움을 주신 것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두 후손의 갈등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갈등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 사탄과 한편이 된 사람들과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과의 갈등입니다.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들의 갈등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경건한 후손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사탄의 자손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갈등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을 멸망케 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십자가로 끌고 갔던 사탄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형벌을 친히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탄의 아이디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탄에게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써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던 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3장 15절에는 인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들이 갈등하는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저주의 내용은 “임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다”입니다. 또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남편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은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지배하려 하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두 종류 의미입니다. 과도한 의존 혹은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양쪽 다 어긋난 것입니다. 〈창세기〉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지배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존중이 아니라 일종의 세력 다툼이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일평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입니다. 또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 한다”입니다.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고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남으로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게 해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죽옷과 죽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형벌 가운데 처해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최초로 하신 행동입니다. 가죽은 한 생명이 죽어야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반역하고 떠나있고,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한 생명의 죽음으로 덧입혀지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조치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죽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의의 옷이 되고, 사탄과 싸우는 전신갑주가 됩니다. 사탄의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죽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죽도록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근을 차단하시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치가 은혜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하셨지만, 죽음 이전에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된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타락한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육신과 새로운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결과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잃은 것보다 둘째 아담으로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죄와 타락이라는 필요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지상의 낙원에 거했을 뿐이지만,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하늘의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죄가 없었을 뿐이지만,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 훨씬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타락 이전 아담은 그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타락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통적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인권의 이름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조물로 여기고 약화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선봉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행동에 무제한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 결과로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며 낙태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제 전통적인 성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러한 흐름이 UN이나 국제인권단체의 권고 및 선진국들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우리도 빨리 그 방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Them Before Us’라는 단체가 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를 신조로 설립되었다. 어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를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일이 그 시작이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이 단체 설립자이자 대표 케이티 파우스트와 수석편집자 스테이시 매닝이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을 썼다. 그들은 성 개방, 이혼, 동성애 등을 이유로 전통적 가정의 약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미국의 현대적(비전통적인)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많은 실제적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와 부모에게 양육 받을 자연법적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정법은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 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첫째, 이 책은 생물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이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1/3이 양부모와 그 자녀를 포함하는 혼합가족이다.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성인 즉, 양부모가 가정에 함께 있는 게 아이들 안전에 큰 위험 요소임을 통계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은 분명하고, 생물학적 성의 특성은 태아의 발생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별된다. 반면 사회적 성별이라는 젠더는 과학적 기준이 전혀 없이 본인의 느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 정체성의 전반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맞춰 양육되어야 한다. 자신의 성과 반대 성 각각의 모델이 되는 남자 아빠와 여자 엄마가 필요하다

“성을 통한 생명의 탄생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생명 탄생의 생물학적 원리이며,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제도이다.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둘째, 결혼의 연약으로 형성된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중요하다. 동거, 느슨한 가정, 일부다처(polygamy), 홀로 결혼(sologamy) 등 가정의 전통적 정의를 파괴하면서 얻으려는 성인들의 성적인 자유는 그 성행위의 결과로 잉태된 아이들의 생명을 뺏거나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가정’이라는 동지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같은 의미에서 이혼과 재혼 역시 아이들의 생존에는 위협적이며, 성장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혼한 부모들 사이를 왕복하며 성장한 아이들은 비록 양쪽의 부모들과 각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동성혼 가정의 아이들, 성전환한 부모의 아이들, 정자 혹은 난자 기증으로 출산한 아이들,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출생의 문제에 봉착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청춘의 많은 시간을 정체성과 뿌리 찾기에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의 정자로 같은 지역의 40여 명에게 시험관 아기를 수정했다는 보고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증자가 범죄자 혹은 심각한 질환 보유자인 것을 숙이고 기증한 예도 있다고 한다.

넷째,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즉시 뒤따르는 반론으로 입양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책은 그 반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준다. 입양은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한 아이들에게, 아이들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가장 잘 지켜줄 가정을 찾아 회복해 주는 과정이다. 반대로 어른들의 욕구가 우선인 위의 모든 행위는 아이들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가정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성을 통한 생명의 탄생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생명 탄생의 생물학적 원리이며,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제도이다.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를 보여준다. **성 혁명 이념을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 낙태처벌법의 위헌결정,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자유를 주장하는 차별 금지법,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려는 생활동반자법 등의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법들의 잠재적 피해자이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단체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운동에 독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thembeforeus.com).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성태연 집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한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택시 기사님이 초청되었다. 그 기사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손님들에게 노트를 건네주고 일기를 쓰시라 권한다고 했다. 손님 대부분 기꺼이 일기를 썼다. 소개된 글 중에서 마음이 짝한 내용도 있고, 한 직장인이 쓴 글은 웃기면서도 안타까웠다.

“멍치가 아픈 게 회사 가기 싫다. 날씨도 좋은 게 회사 가기 싫다. 길들이 막힌 게 회사 가기 싫다. 오늘은 화요일, 왜 화요일일까. 진짜로 멍치가 아픈 게 진짜 회사 가기 싫은가보다.”

아마 직장에서 마주쳐야 할 겉끄럽고, 가슴 답답한 일들로 인해 누구라도 한 번쯤 겪었을 느낌일 것 같다. 이는 타락 이래로 저주받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즐거움 대신 수고와 땀이 요구된다(창 3:17~19)는 사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일(노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결과로써 하나님이 그들로 일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창 1:1~3).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존 스토틀 목사는 <현대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노동과 실업’ 부분에서 일의 관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일하는 사람은 자아 성취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창 1:28)는 사실이다. 하지만 창조 과정의 절정이 안식일 제정에 있으므로 예배보다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 부르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온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산의 날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 따름이다.”

우리는 일터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작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질적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임을 기억하고, 선교사로서 일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분은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기도하셨다. 그리고 자신에게 배정된 차량의 운전기사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겸손한 언어로 기사님을 대하고, 동행하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운전의 수고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했다고 한다. 기사님의 어린 자녀들을 본인의 일터로 초청해서 꿈을 갖도록 응원도 해줬다. 그들의 학업을 위해 도우미 청년을 연결해주고, 진로상담과 신앙을 갖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몇 년 뒤 그분의 진솔한 섬김 덕분에 기사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분은 기사님의 부인에게 남편의 신앙생활이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받았다. 섬김의 동기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 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이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분의 삶은 경쟁과 엄격한 서열 사회의 일터에서 권위를 잃은 듯 나약하게 보이게 되더라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만약 당신이 우월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다섯 달란트’임을 기억해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산의 날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 따름이다(마 25:26).

현장르포

기도와 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정말 오랜만에 웅광로처럼 뜨거운 청년들의 기도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 7월 15일(토)과 16일(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이하 카운트다운) 말이다.

올해 카운트다운의 주제는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였다. 2024년 열릴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로잔운동의 핵심가치이자 모토인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를 주제로 삼았다.

또 카운트다운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축복의 장이기도 했다. 2023 카운트다운에서 청년 141명이 선교 헌신 작정서를 작성했다. FA(청년 단기선교사 훈련) 8명, TP(단기선교사 훈련) 15명, OSOM(장기선교사 훈련) 6명, '배남프(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선교사 자녀 멘토링)' 112명이다.

2023 카운트다운은 첫날부터 뜨거웠다. 기

도의 용사 2,750명이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었다.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문대원 목사(대구 동신교회),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의 메시지가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했다.

최성은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엡 3:1~12)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최 목사는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며 "모두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자"고 권면했다.

문대원 목사는 '사람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 (행 10:30~35)을 주제로 설교했다. 문 목사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서 "많은 청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철호 선교사는 '선교를 이해하는 5가지 핵심 단어' (마 24:14)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 선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매 순간 고민하고, 늘 선교에 헌신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카운트다운 둘째 날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한 청년, 차세대, 선교사, 목회자 등 4,290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이날은 이재훈 담임목사(온누리교회)와 유기성 목사(WJM이사장)가 말씀을 전했다. 이재훈 목사는 'Come To Worship' (계 4:1~11)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쓰임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유기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

하여' (롬 15:17~19)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유 목사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수지 자매(허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다.

진상희 형제(SNS공동체)는 "카운트다운에서 많은 교회와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열방과 선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면서 "전 세계에서 처절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처럼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현준, 홍하영, 김다예 기자 더 많은 사진 보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회복시키는 하나님!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2023 카운트다운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에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피해 다녔는데, 그분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셨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와 계신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뿐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을 통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강현 형제
(수원온누리교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부는 아웃리치에서 만났다.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하나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들도 생겼다. 2023 카운트다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참여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온 가족이 함께 왔다.

2023 카운트다운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두려울 게 없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많은 청년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열방에 전할 것이다.



김한결 형제, 배재애
자매 부부
(여호수아청년부)

보내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왔다. 2023 카운트다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023 카운트다운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 특히 내년 제4차 로잔대회를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또 선교를 다짐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선교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비전이 다시 생겼다. 하나님이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더 뜨겁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성 선교사
(인도네시아,
이수공동체)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딸과 함께 참여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려고 왔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떠나려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왔다.

나는 허브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곳에 가면 희망을 발견한다. 다음세대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청년이 있다. 그 희망을 2023 카운트다운에서도 발견했다. 많은 청년이 열방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 많은 청년이 참여한다고 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방을 품고 달려가는 청년들의 걸음을 축복한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박성희 집사
(분당A공동체)

이촌공동체
일본 오사카

일본은 쾌적한 오지다. 환경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지만, 선교적으로는 밀집 같다. 그 견고한 일본 오사카를 이촌공동체 22명의 기도용사들이 다녀왔다. 아웃리치 첫날, TIM(두란노국제선교회) 오사카지부를 방문했다. 이노우에 마키, 이노우에 테루코 부부 선교사로부터 사역 현황을 들었다. 테루코 선교사가 설명 중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 선교사들의 노고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도톤보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도톤보리의 한 쇼핑몰 앞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고, 워십(Worship)댄스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먼저 김재석 목사님의 인도로 통성기도를 드렸다. 우경선 찬양팀장님의 인도로 모두 소리 높여 찬양했다. 그리고 워십댄스를 할 차례였다. 그런데 워십댄스를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경찰들이 나타나 제지했다. 잠깐 긴장을 했었지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시작했다. 워십댄스가 끝나고 전도지와 선물을 들고 돌씩 짝을 지어 노방전도에 나섰다. 다가가면 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와중에도 담대하게 말을 걸고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 주는 팀원들이 꽤 있었다.

오사카성에서는 찬양과 워십댄스를 두 번 드렸다. 모두 함께 찬양과 워십댄스를 드리고, 일부는 그 부근을 돌면서 노방전도를 했다. 특히 오사카에서 가장 높은 오사카성 천수각 앞 광장에서 찬양과 워십댄스로 이 땅에 하나님



이촌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오사카성 천수각 앞 광장에서 워십댄스를 드리고 있다.

나라가 확장되도록 통성기도를 드릴 때 감동이었다.

계획에 없던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되었다. 노숙인들을 섬기는 홈리스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간곡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했다. 95세인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 인근에서 땅 밟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요청을 듣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빨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석 목사님의 인도로 통성기도를 하고 땅 밟기를 했다.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교회 인근 땅을 밟았다.

현지 교회 섬김은 시온교회는 워십팀이 있고, 리빙지저스교회는 주로 남성들이 갔다. 시온교회의 한 성도가 워십팀에게 고맙다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후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형자 권사님의 지도로 3월부터 맨 연습을 했던 팀원들이 감동했다. 한숙영 권사님은 매일 ‘비를 정(正)자 2번을 쓰면서 연습

했다고 한다. 리빙지저스교회는 자녀와 손주 등 가족들이 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교회의 모습이 ‘고군분투(孤軍奮鬪)’라는 한 단어로 압축되었다.

현지 교회 방문을 마치고 오사카온누리교회에서 한국어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워십댄스와 찬양 특순으로 은혜를 나눴다. 저녁에는 김철희 목사님 부부와 사역자들, 오사카 지역 TIM 파송 선교사 40여 명이 만찬을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천국잔치가 열렸다.

아웃리치 준비모임 초반에 김준 팀장님의 딸 해원 자매가 합류했다. 일도 잘하고 씩씩해서 아웃리치 내내 팀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를 통해 성인공동체 아웃리치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란 권사님은 출발 첫날 간식을 준비했고, 워십팀 분장에도 힘을 보탤었다. 김형중 장로님은 영상을 담당하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셨다. 김준 팀장님은 처음이었지만 베테랑 같았다. 일본어 통역을 담당한 김영환 대표장로님은 이번에도 든든했다. 모두가 한 팀이었다. 우리의 사역이 일본이라는 물병에 ‘복음’이라는 진한 용액 한 방울이 되기를 바란다.



최성원 집사
(이촌공동체)

S브릿지공동체
레바논 아웃리치

S브릿지공동체는 지난 4월부터 6월에 떠나게 될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웃리치 지역은 성경에서만 보았던 레바논으로 결정했다. 나는 난민을 접한 일이 전혀 없어서 그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웃리치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다.

새벽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고가 항공료에 전전긍긍하며 항공료가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통장에 있는 돈은 뭐 할 거니?”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발권부터 했다. 그날 이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아침과 저녁을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님, 이제는 겸손함이 준비된 듯 합니다. 지금은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침묵하셨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했다. S브릿지공동체가 중동 지역으로는 처음 가는 아웃리치이기에 많은 물품과 재정, 사랑의 기도를 받으며 출발했다. 약 300kg가량 되는 짐을 세 팀이 나눠 가져가기로 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캐리어도 버리고 비닐 가방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다. 순간 뇌리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S브릿지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레바논 현지 아이들과 뛰놀며 찬양하고 있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했었는데, 교회에서 한 번 짐을 내려놓았고, 공항에서 또 한 번 짐을 내려놓았다. 그 짐들은 나의 욕심이었다.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사는 난민들과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나는 너무 사치스러운 짐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눈물로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하나님

은 여전히 침묵하셨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열다섯 개의 가정교회를 돌보고 계셨다.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10여 년 동안 매일 밤 조심스럽게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다.

우리팀은 시리아 국경 근접거리에 있는 난민촌으로 이동했다. 우리 팀은 도착한 첫날 아침부터 <예레미야>에가)로 큐티 묵상을 나누

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리아 내전이 12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내전이 끝나면 고국으로 가고 싶었던 47세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가라”고 말이다. 나는 ‘내 짐도 못 내려놓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뒤로하고 눈물만 삼켰다.

선교사님 내외분과 마지막 만찬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다. 선교사님은 우리들 덕분에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10년 동안 골방에서 홀로 쏟으셨을 간절함의 눈물이 전해지는 듯했다.

레바논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천 년이 흐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나도 마음에 품고 계속 그 땅을 위해 기도하려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지금은 가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주실 것 같다.



윤여희 자매
(S브릿지공동체)

“하나님! 지금은 가도 될까요?”

맛있는 말씀 해설

“...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빌 1:1)

잘 쓴 글의 첫 문장에는 전체 글의 방향과 핵심이 담긴다. 문학에서 유명한 첫 문장은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이다. 해당 문장이 전체 작품의 흐름을 예고하듯이 바울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첫 문장 역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준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전반부는 발신자 정보이고, 후반부는 수신자 정보다. 발신자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다. 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동역자 디모데를 언급한다. 수신자 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 감독, 집사로 표현한다. 발신자 정보 세 가지와 수신자 정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보서> 전체를 파악하면 좋겠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 주로 ‘사도’라는 표현을 썼다.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도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

했다는 의미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의 존재로 여길만하다.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에게는 어떠한 의사 결정권도 없고, 오직 주인의 생각만 실현한다고 소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빌 1:12~30)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신앙(빌 3:7~8)이 담겨 있다.

귀한 동역자이자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긴 디모데는 바울서신 열세 권 모두에 관여하며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다. 바울의 디모데 파송(2:19~24)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처음부터 언급해서 앞으로 파송될 디모데를 잘 대우해달라는 당부가 스며 있다.

‘모든 성도’는 구별과 평등을 의미한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다. 성도는 여자, 아이, 새신자, 노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계급화되지 않고 각자

역할이 있다고 여긴 바울의 평등사상이 보인다. 감독과 집사가 구분되어 뒤에 나오는데, ‘또한’은 원어로 보면 ‘포함’을 뜻하기에 정리하면, ‘감독과 집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다.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는 ‘교회’(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를 꾀한다는 목적의 공동체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사용을 자제했다. 로마와 빌립보는 로마색이 짙은 식민지였기에 더욱 조심했다. 그 대신 ‘성도’나 ‘시민(폴리튀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감독(에피스코포스)’과 ‘집사(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대규모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당시 빌립보의 상황을 봤을 때 대략 50명 정도 모이는 가정 교회였다. 따라서 감독은 장로나 목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사 역시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처럼 행정과 봉사를 도맡았던 자가 아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집트에서 다량 발굴된 파피루스에 따르면, 감독은 재정담당자, 집사는 식사담당자를 의미한다. 작은 섬김이었지

만 재정과 식사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역할인데 빌립보 교회에만 나오는 점을 미뤄보아 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총망라하면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쓸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저 바울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낼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사도임을 이미 알고 있어 빌립보에 사는 재정담당자와 식사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 즉 여자, 아이, 새신자, 노예 등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합니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이방인 선교, 유럽으로 확산되다

7월 24~30일
<사도행전> 14:1~16:18



더욱 값지다. 성령의 지혜로, 생명을 다한 열정으로, 핍박에 대한 인내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묵상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래 머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후 옮겨 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무리는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려 한다. 두 사도는 그들을 말리며 하나님을 전한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돌해서 무리가 돌로 바울을 치고,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은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한다. 그곳의 제자들을 굳게 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

디옥으로 돌아가 선교 사역을 보고한다.

묵상포인트 2: 최초의 기독교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다. 공의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방인 신자의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에 대한 갈등이 회의를 통해 정리되고, 이방인 선교에 더욱 힘이 실린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방향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해 다툼이 일어난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 이에 대해 자문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신 이방인 제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한다. 더 불어 야고보 사도는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만 요구하자고 결정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담은 편지에 안디옥 성도들이 기뻐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서 각자의 선교지로 향한다.

묵상포인트 3: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의 선교 행선지가 유럽 지역으로 바뀐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확산하기 시작한다. 환상으로 선교의 방향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묵상하자.

▶유대인과 이방인 전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 바울

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신다. 비두니아에서도 막으셔서 드로아로 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다. 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머문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지며 주인들에게 큰돈을 벌여 주는 여종을 만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핍박 속에서 생명 다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사역 보고를 했다. 전도와 봉사를 할 때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자.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화합을 도모하자.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일이 없는지 돌아보자.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Yan Katerina
자매를 위해서!

저희 딸 Yan Katerina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Yan Katerina는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입니다. 선발전에 참석하기 전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MRI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전보다 운동 시간이 2~3배 늘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병행해서 그런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an Katerina의 허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하게 선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운동이 힘들고, 허리 통증도 심해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마음에 금식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Yan Katerina가 선수 생활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Kim Vlada 집사(안산M센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편의점

서울역쪽방상담소 ‘온기창고’ 개소식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훈 목사, 최경호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왼쪽부터).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온기창고’ 개소식을 지난 7월 20일(목) 서울시 용산구 동작동에서 개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경호 대표이사(코리아세븐), 강석주 의원(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장), 유호연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 협약 및 운영기관 관계자, 쪽방촌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 협약서 서명, 소원나무 말씀카드 달기, 기념촬영, 쪽방촌 주민 가정 물품 전달 등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공간이 생겨서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온기창고가 더 많은 이웃을 더 오래도록 돕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이웃들의 필요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돕는 온누리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쪽방촌 주민 강병일 씨는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공간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나눠주신 마음의 온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온기창고를 잘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편의점이다. 41평(135.21㎡) 규모로, 주 3회 이상 운영한다. 전담인력 1명과 주민 2명이 운영할 예정이다.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현행 선착순 및 줄 세우기 물품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일률적 배분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현금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온기창고’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세븐일레븐에서 3년 동안 월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카우치워십 단독콘서트 ‘回中讚揚(회중찬양)’

한동대학교 크리스천 콘텐츠 크리에이터

카우치워십(Couch Worship) 단독콘서트 ‘回中讚揚(회중찬양, 중심으로 돌아가며 부르는 찬양)’이 지난 7월 20일(목)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카우치워십은 한동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카우치워십이 개최한 행사에서는 크리스천 플리마켓 ‘LOA 크리스천 페어’, 선택 특강, 카우치워십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LOA 크리스천 페어’에는 40여 개 기독교 브랜드가 참여했다. 엽서, 키링, 텀블러 등을 판매했다. 선택 특강에서는 달빛마을(크리스천 유튜브) ‘LOVE ST

ORY’, 임영광 본부장(CGN) ‘내가 바로 콘텐츠다!’, 민준호 대표(UJM KOREA)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종리스찬(크리스천 유튜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는 과정’, 이인용 장로(삼성전자 상임고문) ‘관계와 소통, 그리고 미디어’를 주제로 강의했다. 카우치워십 콘서트 ‘회중찬양’에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이 함께 했다.

조성찬 형제(시흥사랑스러운교회)는 “특강과 카우치워십 콘서트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떨어졌던 마음을 더욱 가까이하며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NGO더멋진세상 ‘오지마을 선교병원’ 건축

도미니카공화국에 2023년 11월 건축 예정

NGO 더멋진세상이 도미니카공화국 가호 데 몬테(Gaio de Monte) 마을에 선교병원을 건축한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가 지난 7월 4(화)일부터 7월 12일(수)까지 도미니카공화국 가호 데 몬테 마을 답사를 다녀왔다. 그곳의 열악

한 의료 환경을 돌아보고, 선교병원 건축과 운영을 위해서 ‘기독교의사연합회’(BPB)와 MOU를 체결했다. 선교병원은 2023년 11월 건축 예정이다. 선교병원이 세워지면 가호 데 몬테마을 주민 1만여 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핑퐁! 블록 배달 왔습니다!

CGN ‘바이블록’ 증정 이벤트

CGN에서 ‘바이블록’ 증정 이벤트를 한다. 바이블록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바이블록: 성막 대작전’에서 파생된 블록놀이다. 블록으로 성막을 만들면서 성경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성막을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7월 25일(화)까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QR코드 참고). 신청서에는 이름, 소속 교회, 직분, 연

락처, 주소, 블록 활용 계획 등을 적으면 된다. 주일학교 바이블록 활용 계획을 작성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벤트에 선정된 성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바이블록을 수령한 다음 3개월 안에 제출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제작한 영상은 이메일(gurwn1212@cgmail.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96-9800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격주로 게재하는 ‘어린이신문’에 소개할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를 꼭 기록해야 한다. 주제를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스페인편,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성경에 나오는 장소와 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장을 탐사하고 공부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스페인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일(목)부터 11일(토)까지 진행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종교개혁사 투어’다.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예수회’, ‘종교재판소’, ‘반종교개혁’, ‘유대교 르네상스’를 주제로 교회사를 배우고, ‘신대륙 발견’, ‘스페인제국 역사’, ‘코르도바&그라나다 이슬람 역사’, ‘서양 건축&미술사’를 주제로 세계사 공부도 한다. 종교개혁사 투어는 이탈리아편, 스위스편, 독일편이 있다.

문의: 010-4902-1022

‘청춘클래스’ 5기 오픈!

35세 이상 크리스천 미혼 청년

‘청춘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3일까지 네이버카페 ‘온누리교회 청춘클래스’(cafe.naver.com/onnurichungcle)에서 신청하면 된다. 35세 이상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9만 원이다. 석식이 제공된다. 청춘클래스 5기는 8월 19일(토)과 26일(토) 온누리교회 여의도이룸에

서 진행된다. 19일 최성민 목사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 26일 강미향 목사 부부 ‘만남, 결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강의한다.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준다. 문의: 네이버카페 ‘온누리교회 청춘클래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일대일, 중보기도, 문서전도, 찬양팀, 악기 연주

교도소 사역을 하는 새사람사역팀에서 2학기 봉사자를 모집한다. 주중 사역이 가능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일대일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 수료자), 중보기도, 문서전도, 찬양팀, 악기 연주 등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출소 이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예배사역, 소망 일대일사역팀, 서울구치소 QT사역팀 등이 있다. 문의: 010-3242-8743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다. 타 교회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연습 및 모

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첫째 주 일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에서 한다. 문의: 010-8285-6435



CGN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신약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프로그램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를 방영한다. 지난 7월 17일(월) 첫선을 보인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는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의 이야기 2편을 2주 동안 방송한다. 7월 31일(월)부터는 신약의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까지를 매주 방영한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는 CGN 유튜브 채널과 기독교 OTT ‘풍당’,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과 기독교 OTT 풍당에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TV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방영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산천로 8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t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우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우주 강지영 권오향 이진희 임혜선 윤지연 김미정 권용갑 김혜영 김도은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성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완 김태완 김현실 김현실 김흥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현 박천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구 변대섭 서경남 송성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성 신경훈 신원철 스티브차 안사부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대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원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김광동 김남열 김선재 김선택 김승역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 완 김수웅 김승철 김용배 김원길 김원국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중성 김중순 김주흥 김진희 김태욱 김철수 나상권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문중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중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설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설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원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성열 양재수 양재우 오성원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인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이준 윤영진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도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태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중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희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광근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국 정보원 정승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택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재홍 정희원 조창식 조희동 조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근 최 병 최성수 최진식 최창규 최정수 최중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배진 한양희 한형석 한종익 함공식 함선호 함정호 조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호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성규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과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곽호준 권순형 권오섭 권오혁 금세홍 김경동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삼 김명찬 김민현 김명호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곤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국 김영록 김영환 김영한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경열 김재일 김경민 김준현 김중완 김중호 김지현 김중영 김준용 김준호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경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희수 김희원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국 남윤창 남정진 남주인 노기훈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민기 박구범 박균범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민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수형 박일구 박일범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곤 박호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연 서광재 서주명 손기철 손정재 손태욱 손태호 송중환 송호철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섭 신하철 신학철 신현순 심갑철 심효우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안상식 양 웅 양준홍 양준정 양종식 오 병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승택 오익식 오내복 오승근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유석우 유석주 유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흥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방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수배 이영운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김요나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식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성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정우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치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 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지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이상현 이우성 이은창 이준상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우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한재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우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운행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도 인정식 임한식 오명진 정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범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만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7/15(토) 과천의왕 류인순 권사 모친상, 김기섭 장로
빙모상 고 윤병혜

7/15(토) 강남B 흥은경 성도 부친상 고 홍영표

7/16(주일) 서빙고 노원 이현선 성도 모친상 고 이옥순

7/17(월) S브릿지 조영제 성도 부친상 고 조재홍

7/17(월) 강남B 김경 성도 모친상 고 김경자

7/19(수) 서초C 강민구 성도 부친상 고 강구한

7/19(수) 양천 이경희 성도 부친상, 원동준 성도
빙부상 고 이의도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장소: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술 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출판2-3부 단행
본 기획편집자 각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기간: 7월 31일 월요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주차 섬김 팀원 모집
시간: 1조(일요일주일 08:00~11:30), 2조(일요일주일
10:00~14:00) 선택 가능
장소: 사랑들, 일동제약, 교회 주변 등
모임: 주차사역실(서점 옆 계단 이용 좌측)
문의: 정광진 팀장(010-3811-6252)